

오래된 논쟁의 현대과학적 해석

- 설명적/구성적 이론과 기반주의/반기반주의 구분에 대한 소고 -

양 준 희

경희대학교 부교수

< 목 차 >

I. 서론	VI. 기반주의/반기반주의 구분에 대한 논의와 현대물리학
II. 설명적 이론의 논리적 귀결점과 한계	
III. 구성적 이론: 종교, 철학, 프로파간다와의 차이점?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중심용어): 설명적/구성적 이론(Explanatory/Constitutive Theories), 기반주의/반기반주의 이론
(Foundational/Anti-foundational Theories), 상대성 이론(Theory of Relativity),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

국 문 요 약

본 논문은 국제정치학계에서 끊임 없이 지속되었던 실증주의/탈실증주의 논쟁을 설명적/구성적 이론과 기반주의/반기반주의 구분이라는 틀을 사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자연세계를 설명하듯이 사회세계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설명적 이론은 논리적으로 볼 때 결정론적 세계관으로 귀착되거나 규범이론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두 기능성 모두 설명적 이론의 논리적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반면 이론이 세계를 구성하는데 사실상 도움을 준다는 구성주의 이론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매우 타당하지만 반기반주의적 입장을 취할 경우 종교나 철학 또는 프로파간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대부분의 설명적 이론가들은 진리에 대한 주장의 옳고, 그름이 밝혀질 수 있다는 기반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반면 많은 구성적 이론가들은 그와 같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반기반주의적 견해를 펼친다. 본 논문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대표되고 있는 현대물리학의 해석을 통해 구성적/기반주의적 입장에서 오래된 논쟁을 재조명하고 있다. 기반주의적 시각은 하나의 절대적 진리와 세상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이 반증가능성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하지만 현대물리학은 사람에 따라 진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상대적 관점과 인간의 의식에 의해 세상이 창

조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나 이론이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비록 국제정치에 대한 현대물리학적 해석은 구성적 이론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 과학적 기준에 의해 옳고, 그름이 밝혀질 수 있다는 기반주의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반기반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기존의 구성적 이론과는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I. 서 론

스티브 스미스가 “지난 10년 동안 국제이론에서 이루어진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한 가지는 국제이론의 초점으로서 규범이론이 재등장했다는 점이다”라고¹⁾ 지적하듯이 최근 국제정치학계는 구성주의 이론의 등장과 함께 아이디어, 가치, 규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²⁾ 규범이론의 재등장은 그 동안 실증주의/현실주의 패러다임의 기세에 눌려 금기시되어 왔던 이슈들을 학문적 입장에서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차 대전 전후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간의 논쟁, 1950-60년대의 역사와 과학의 논쟁, 80년대 후반의 제3의 메타이론적 논쟁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된 국제정치의 ‘과학화’에 대한 논쟁이 고스란히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모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³⁾ 즉 국제정치는 특정 가치를 추구하는 규범적 학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법칙을 발견해야 된다고 믿는 실증주의적 시각과 그와 같은 시각은 ‘오만’하고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짓는 탈실증주의간의 논쟁이 규범이론의 재등장으로 인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⁴⁾

* 이 논문은 2004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연구 결과임.

- 1) 스티브 스미스, “성찰주의와 구성주의,”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하영선의 다수 (역),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3), p. 245.
- 2) 이와 같은 시도의 최근 논문으로 Heikki Patomaki, "Back to the Kantian 'Idea for a Universal History'? Overcoming Eurocentric Accounts of the International Problematic,"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5, No. 3 (2007), pp. 575-595; Christine Sylvester, "Whither the International at the End of IR,"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5, No. 3 (2007), pp. 551-573; Chaim D. Kaufmann and Robert A. Pape, "Explaining Costly International Moral Action: Britain's Sixty-year Campaign Against the Atlantic Slave Trad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4 (Autumn 1999), pp. 631-568;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and Yosef Lapid and Friedrick V. Kratochwil, eds., *The Return of Culture and Identity in IR Theory* (Boulder, Colo.: Lynne Rienner, 1996) 참조.
- 3) 세 번의 논쟁에 대한 간단한 요약으로는 Yosef Lapid, "The Third Debate: On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Theory in a Post-Positivist Er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3 (1989), pp. 235-254 참조.
- 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와 비판적 현실주의란 관점으로 이 논쟁을 해석하려는 시도로는 Heikki Patomaki, and Colin Wight "After Postpositivism? The Promises of Critical Realis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 (2000), pp. 213-237 참조.

사실 실증주의 대 탈실증주의 논쟁은 명쾌한 결론도 없이 형태를 바꾸면서 지겹게 계속된 오래된 논쟁이다. 잘못된 철학적, 인식론적 논쟁은 본질적으로 결론이 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논쟁으로 인해 실증적 연구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비판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냉전의 종식, 9·11 사건, 유럽통합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역사적 사건들의 발발이다. 만약 국제정치가 진정으로 ‘과학화’될 수 있다면 왜 대부분의 실증주의(다수의 현실주의/자유주의)학자들이 위의 사건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을까? 우리가 단지 계산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와 같은 예측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을까?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소모적’으로 보이는 메타 이론적 논쟁에 다시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웬트가 최근에 *Constructiv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lexander Wendt and His Critics*에서 발표한 국제정치에 대한 양자역학적 해석은 실증주의/탈실증주의 논쟁에 불을 다시 지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⁵⁾ 즉 웬트는 과거에 구성주의 이론을 주장하면서도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고집하였던 것과는 달리 현대물리학이 발견한 사실들은 고전물리학에 기초한 실증주의적 인식론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비롯한 성찰주의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탈실증주의적 인식론에 가깝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⁶⁾

실증주의(대부분의 현실주의/자유주의 이론) 대 탈실증주의(대부분의 구성주의 이론) 논쟁은 깊은 철학적,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접근 방법에 따라 끝없이 복잡하고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⁷⁾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스티브 스미스가 사용하는 설명적/구성적 이론과 기반적/반기반적 구분의 틀을 사용하여 국제정치학계에서 벌어진 메타 이론적 논쟁의 핵심 쟁점을 간결하게 다시 짚어 보고 각 시각의 논리적 모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설명적 이론이란 세계를 바라봄에 있어 그것을 다루는 이론의 외부에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고 구성적 이론이란 이론이 사실상 세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는 시각이다. 또한 기반주의적 입장은 모든 진리에 대한 주장이 참 혹은 거짓으로 판단 될 수 있다는 주장이고 반기반주의적 시각은 중립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진리에 대한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대략적으로 설명적 이론들은 기반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고 구성적 이론들은 반기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⁸⁾ 물론 웬트의 구성주의 이론처럼 구성이론의 성격을 띠면서 기반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설명적 이론들은 기반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실증주의적 시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반면 구성적 이론들은 반기반주의적 성격을 가지며 탈실증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물리학

5)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as Cartesian science: an auto-critique from a quantum perspective," in Stefano Guzzini and Anna Leander, (eds.), *Constructiv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lexander Wendt and his critics* (London: Routledge, 2006).

6)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as Cartesian science: an auto-critique from a quantum perspective," in Guzzini and Leander, (eds.), *Constructiv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2006), pp. 181-219.

7) 실증주의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논쟁은 Steve Smith, "Positivism and beyond," in Steve Smith, Ken Booth and Marysia Zalewski, (eds.), *International Theory: Positivism and Beyo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참조.

8) 스미스, "성찰주의와 구성주의," pp. 241-245.

의 양대 기둥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석을 통해 구성적/기반주의 시각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다. 물론 구성적/기반주의적 입장은 과거 켈트에 의해 주장되었으나 본 논문은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기초한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물리학이 발견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설명적 이론의 논리적 귀결점과 한계

인간 행위의 규칙성을 발견하여 자연과학자들이 물질세계를 설명하듯이 사회세계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설명적 이론은 오랜 세월 동안 국제정치학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대부분의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이론들은 이 범주에 속한다.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의 창시자이며 국제정치학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한스 모겐소가 “정치현실주의는 정치는 사회일반과 마찬가지로 인간본성에 뿌리를 둔 객관적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는다.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작동하는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와 같은 법칙의 작동은 우리의 선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로 인간의 도전은 실패의 위험을 무릅쓴 채 시도될 것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설명적 이론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⁹⁾ 근본적으로 모겐소의 주장은 사실과 가치는 구분될 수 있으며, 이론과 그 이론이 설명하려는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사회에서도 자연세계와 마찬가지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는 우주는 거대한 기계 또는 시계와 같으며 따라서 예측이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고전물리학적 관점과 일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제정치가 물리학적 인식론과 방법론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정치의 ‘과학화’를 시도한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설명적 이론 또는 실증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은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자연과학과는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기에 가치중립적 이론이라는 것은 좋게 보면 환상이고 나쁘게 보면 냉소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또한 짐 조지는 “세상이 밖에 있다”는 시각은 순진한 믿음에 불과하고 철학적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하게 비현실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¹⁰⁾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기 보다는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하나는 법칙과 이론의 차이에 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설명적 이론의 논리적 귀결이다. 설명적 이론은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기초한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국제정치를 분석하려 하는데 그와 같은 관점은 결정론적 세계관으로 귀착되거나 설명적 이론가들이 꺼려하는 규범이론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9) 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6th ed. (New York: Alfred A. Knopf, 1985), p. 4.

10) Jim George, *Discourses of Global Politics: A Critical (Re)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Boulder, CO: Lynne Rienner, 1994), pp. 11, 21.

국제정치에서는 자연과학에서 발견되는 법칙이나 규칙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없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의 중요성이 설명적 이론의 존재 자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기에 우선 그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론을 논할 때 이론과 법칙의 차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습성은 비단 국제정치학자들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자들에게서조차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즉 물리학자들이 뉴턴의 법칙을 논할 때 과연 그들이 법칙을 논하는 것인지, 이론을 논하는 것인지를 물으면 순간 혼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로니컬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론으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즉 물체간의 힘이 존재한다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사실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을 물질과 운동으로만 설명하였던 뉴턴의 동시대 기계적 철학자들은 “근원을 알 수 없는 뉴턴의 만유인력은” “마술사들이 주장한 힘(power)이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의 ‘신비한 성질’(occult qualities)”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였다.¹¹⁾ 놀라운 사실은 뉴턴이 그와 같은 비판에 대해 중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론을 제공하기 보다는 “나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말로 논의를 회피하였다는 것이다.¹²⁾ 사실 뉴턴이 주장한 물체사이에 존재하는 힘은 운동의 ‘효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물체가 서로 당긴다는 ‘사실’은 그 끌어당김을 가능케 하는 무엇인가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 원인은 아니다.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중력을 설명하기까지 사실 과학자들은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였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양자와 전자의 밀고 끌어당김은 전자기자력이자 중력이 아닌 것이다.

국제정치학계에서 이론과 법칙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학자는 신현실주의 이론을 만들어 낸 월츠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을 포함하여 자연과학자들조차 이론과 법칙의 차이에 대해 혼동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월츠가 지적하는 이론의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정의에 의하면 “이론이란 특정 행동 또는 현상에 관한 법칙들의 한 벌 또는 모음이다”라고 월츠는 적고 있다.¹³⁾ 만약 그와 같은 정의를 따른다면 이론과 법칙의 차이는 질적이 아닌 양적 차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월츠는 “이론이란 단순히 법칙들의 모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설명하는 진술이다”라는 정의를 받아들인다.¹⁴⁾ 다시 말해 이론과 법칙은 질적으로 다르고 법칙이 두 변수간의 변하지 않는 관계 또는 확률적 관계(association)를 진술하고 있다면 이론은 그런 법칙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월츠는 법칙은 실증적 증거에 의해 증명되거나 반증될 수 있지만 이론은 절대 증명될 수 없고 단지 더 나은 이론에 의해 교체된다는 시각을 견지한다.¹⁵⁾ 법칙을 설명하는 것을 이론이라 하고 이론은 증명되거나 반증될 수 없다는 월츠의 시각은 급세기 최고 물리학자 중의 하나인 호킹(Stephen Hawking)에 의해서도 지지를 얻는다. 호킹은 이론은 우리의 정신에만 존재하고 그 어떤 다른 현실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물론 그렇

11) 홍성욱, 이상욱 외 지음, 『뉴턴과 아인슈타인: 우리가 몰랐던 천재들의 창조성』 (서울: 창비, 2004), p. 25.

12) *Ibid.*

13)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p. 2.

14) *Ibid.*, p. 5.

15) *Ibid.*, p. 9.

다고 해서 모든 이론이 좋은 이론은 아니다. 호킹에 의하면 좋은 이론은 자의적인 요소를 적게 가지고 있는 모델에 기초하여 많은 종류의 관측을 정확히 묘사하면서 미래의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어떤 물리적 이론도 절대 증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호킹의 견해이다.¹⁶⁾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에서만 존재하고 다른 현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칙의 세계는 논쟁의 영역이 아니다. 적어도 물리학에서는 학자들이 법칙을 가지고 끊임없는 논쟁을 벌이지는 않는다. 즉 힘은 질량에 가속도를 곱한 것이다($F=ma$)라는 뉴턴의 제 2법칙이나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같은 것은 참이든 거짓이든 분명하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이슈이지 논쟁을 벌일 대상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국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법칙과 이론의 구분이 애매할 경우가 많고 이론은 물론 법칙의 수준에서조차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모겐소는 “삶, 번식, 지배에의 의지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고 “권력투쟁은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인 것이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역설하였고¹⁷⁾ 월츠는 국제정치에 명백한 정치적 이론이 있다면 그것은 세력균형이론이라고 주장하였다.¹⁸⁾ 과연 위의 주장들이 법칙인가 이론인가?

사실 모겐소의 다양한 주장 중 무엇이 법칙이고 무엇이 이론인지를 구분하기는 간단하지 않다. 두 변수간의 변하지 않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법칙이라 하였을 때 모겐소의 주장에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인간의 지배의지로 인해 권력투쟁이 발생한다는 선언이 일견 법칙처럼 보이기 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모겐소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지배의지를 가지는 것은 상수이지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배의지로 인해 권력투쟁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거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또한 월츠가 지적하였듯이 증명이나 반증이 불가능한 인간본성을 바탕으로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다.¹⁹⁾ 그렇다면 월츠의 세력균형이론은 어떤가? 한 나라의 힘이 증가할 때 다른 국가들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력균형을 이루려는 강한 경향이 있다는 주장은 형식상 법칙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주장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명한 역사학자인 슈로더는 1648년부터 1945년까지 유럽국가들이 채택한 가장 지배적 전략은 세력균형이 아니라 잠복(hiding), 초월(transcending), 편승(banwagoning)이었다는 주장을 펼친다.²⁰⁾ 뿐만 아니라 1, 2차 세계대전 이후 힘이 가장 크게 증가한 나라는 미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에 세력균형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는 월트(Stephan Walt)와 같이 국가들이 힘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위협에 대해 균형을 이룬다는(balance against threat)

16) Stephen Hawking, *A Brief history of Time: From the Big Bang to Black Holes* (New York: Bantam Books, 1990), pp. 9-10.

17)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pp. 38-39.

18)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 117.

19)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20) Paul W. Schroeder, "Historical Reality vs. Neo-realist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Summer 1994).

새로운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해결될 수도 있다.²¹⁾ 하지만 스웰러(Randall Schweller)같은 학자는 역사 속에서 세력균형보다는 편승(bandwagon)이 더 일반적이라는 주장을 펼침으로 다시 한 번 세력균형이라는 현상이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법칙인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스웰러는 국가들은 현상유지적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이익이 발생할 기회가 생기면 강자에 편승함으로써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를 실현시킨다고 주장한다.²²⁾ 여기에 크리스천슨(Thomas Christensen)과 스나이더(Jack Snyder)의 회피(buck-passing)과 얽힘(chain-ganging)을 보태게 되면 세력균형에 대한 해석은 거의 미로로 빠지게 된다.²³⁾ 바스케즈(John A. Vasquez)는 세력균형이론에 대한 다양한 수정과 재해석은 라카토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퇴보적인(degenerating) 연구 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역설한다.²⁴⁾ 즉 세력균형의 이론 속에 힘, 위협, 이익의 세력균형도, 편승도, 회피도, 얽힘도 모두 포함된다면 그것은 “동전의 앞면이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면 당신이 진다”라는²⁵⁾ 반증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과학적 이론이 아닌 철학이나 종교적 관념과 유사한 주장이 되는 것이다.²⁶⁾

사실 국제정치에서는 두 변수간의 변하지 않는 관계라고 부를만한 법칙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냉정히 말해서 국제정치의 모든 이론은 그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다.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없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존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월츠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양극체제에서는 불확실성과 오산의 확률이 다극체제보다 적기 때문에 국제체제가 더 안정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더라도 역사가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보다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 설명 또는 이론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²⁷⁾ 사실 월츠는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보다 왜 더 안정적인가를 설명하기에 앞서 그것이 법칙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었는가를 먼저 증명했어야 한다. 냉전의 종식으로 양극체제, 다극체제에 대한 월츠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엄격히 말해 월츠의 이론적 주장은 처음부터 비판받았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끝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양극체제와 또 다시 전쟁으로 끝난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경우는 모두 제외한 채 미국과 소련의 관계라는 하나의 경우를 가지고 양극체제, 다극체제를 마치 법칙이나 되는 양 논의를 전개시켰기 때문이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민주평화

21)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22)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Summer 1994), pp. 72-107.

23) Thomas J. Christensen and Jack Snyder,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2 (Spring 1990), pp. 137-168.

24) John Vaquez, "The Realist Paradigm and Degenerative vs. Progressive Research Programs: An Appraisal of Neotraditional Research on Waltz's Balancing Propos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4 (December 1997), pp. 899-912; and Imre Lakatos,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Imre Lakatos and Alan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25) Vaquez, "The Realist Paradigm," p. 901.

26) 반증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로는 Karl R. Popper, *Conjectures and Refutations: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London: Routledge, 1963), p. 35; and 양준희 "티모스적 시각으로 본 국제정치: 제3의 논쟁을 넘어서," 『국제정치논총』, 제36집 1호, pp. 60-67 참조.

27)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다극체제가 양극체제보다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론도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이라 인정받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민주국가간에도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뚜렷한 법칙도 없는 상황에서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 같은 설명적 이론들이 지난 40년간 국제정치학계를 지배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로니컬하지 않을 수 없다.²⁸⁾

법칙과 이론의 문제이외에도 설명적 이론은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기초한 실증주의적 인식론이 사회과학에 적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이다. 기본적으로 뉴턴은 우주가 태초에 감아놓았던 태엽이 풀리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관점에 의하면 모든 물체는 인과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고 만약 우리가 어떤 물체의 현재 위치와 속도를 알고 있다면 그 물체의 과거와 미래를 계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즉 과거와 미래의 모든 정보는 현재의 순간에 모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 고전물리학의 기본적 관점이다. 이와 같은 시각의 논리적 귀결은 결정론적 세계관이다. 우주의 모든 것은 태초에 이미 결정되었다. 우주의 모든 물체의 위치와 속도 그리고 다른 변수들을 계산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를 예측할 수 있다.²⁹⁾

설명적 이론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기초한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공유한다. 즉 그들은 자연과학자들이 물질세계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점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물질과 다를 것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인간은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동물적/물질적/유전적 요소에 의해 움직이고 따라서 과학적 시각으로 모든 것이 분석될 수 있다고 믿었던 홉스나³⁰⁾ 인간의 모든 생각은 물질적 토대에 기초한다고 믿었던 마르크스는 위의 가정에 동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이 궁극적으로 물질과 같다면 그것은 인간의 사회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적 세계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식, 노력, 결정 등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사실 설명적 이론가들에게 이와 같은 의문은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물질과 동일하다고 보아도 문제이고 그렇지 않다고 보아도 문제인 것이다.

이제까지 설명적 이론가들은 인간의 의식, 동기, 생각 등을 논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시각을 견지하였다. 일찍이 모겐소는 정책결정자들의 동기를 분석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여 무익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정책지도자들이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서 역사적 사실이 그와 같은 가정을 증명한다고 강조하였다.³¹⁾ 그 후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가정으로 하는 합리적 모델은 실증주의 패러다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와 같은 가정에 기초한 다양한 이론들이 만들어졌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시각이 인간을 로봇이나 복잡한 계산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28) Steve Smith, "Positivism and beyond," in Steve Smith, Ken Booth and Marysia Zalewski, (eds.), *International Theory: Positivism and Beyo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11.

29) 브라이언 그린, 박병철(역), 『우주의 구조』 (서울: 승산, 2004), pp. 134-135.

30) Thomas Hobbes, *Leviathan* (New York: Penguin Books, 1968).

31)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pp. 5-7.

컴퓨터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특정 변수들이 입력되면 로봇이나 컴퓨터는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여 항상 같은 최적의 대답을 제공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때로는 감정적이고 이상적이고 우연적이고 창조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이 인간을 로봇이 아닌 인간으로 만드는 결정적 요소이다. 문제는 설명적 이론가들이 이와 같은 인간의 특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명적 이론이 자연과학의 법칙이나 이론처럼 작동하려면 인간의 돌발적 또는 ‘비이성’적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행동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국제정치학계의 그 어떤 설명적 이론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었다. 만약 사회과학이 자연과학과 같은 과학이 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칙과 이론의 설득력은 설명력과 예측력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이다.³²⁾ 국제정치이론의 과학화의 선봉에 서고 있는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국제정치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할 때 마다 정책결정자들의 ‘비합리성’을 비판하거나 사후설명을 제공하곤 하였다. 그들이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정하고 있는 자연과학적 인식론이 근본적으로 틀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다. 사실 합리적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정책결정자들의 합리성과 이익이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한 사람의 합리성이 다른 사람의 비합리성이고 한 사람이 생각하는 이익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이익이 다르다면 합리적 모델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의 합리성은 매우 다르다. 이슬람 세계 사람들의 합리성과 미국사람들의 합리성이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의 합리성이 다 다르고 인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은 돌발적 행동을 끝없이 한다면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같은 법칙을 발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만약 설명적 이론가들이 꿈꾸는 법칙들이 자연과학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도 발견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만들어 진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희소식이 아니라 비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뉴턴은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모든 변수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우주의 시작과 종말을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이와 같은 법칙이나 이론이 국제정치에도 적용된다면 국제정치의 과거나 미래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1차 세계대전도 히틀러의 출현도 사실 태초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이나 대중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3차 세계대전이 이미 결정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설명적 이론을 주장하는 그 어떤 이론가도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세계조차도 태초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세상의 많은 것은 의미를 잃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몰라도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꿈에 불과한 것이다.

비록 설명적 이론가들이 자연과학자들이 물질세계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세계를 설명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뉴턴의 결정론적 세계관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카야는(E. H. Carr)는 정치학은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묘사함과 동시에 세상

32)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 8.

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강조하였던 것이다.³³⁾ 또한 모겐소를 비롯한 수많은 설명적/현실주의 학자들이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을 반대하거나 특정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을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장은 논리적 모순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물질세계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논의를 펼치지 않는다. 물리학자들은 중력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고 양자나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어떻게 도는 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다. 우주는 과학자가 특정 사실을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정해진 법칙에 의해 돌아간다. 만약 설명적 이론가들이 자연과학자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국제정치에 대해 규범적 논의를 펼칠 필요가 없다.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충고를 하던 세상은 정해진 법칙에 의해 작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세상이 국제정치학자들의 충고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적 이론가들이 믿는다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국제정치라는 학문이 자연과학과는 달리 규범을 논해야 하는 학문이라면 설명적 이론가들의 이론은 규범이론이 빠진 반쪽짜리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이상주의나 구성주의 시각을 ‘비과학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이론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사실 뉴턴의 고전물리학은 물질 분야를 다루고 있지 인간의 의식이나 노력, 동기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는다. 뉴턴의 고전물리학은 물질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과 예측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인간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예측도 제공할 수 없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 높이의 빌딩에서 뛰어 내린다면 뉴턴의 고전물리학은 바람, 점프 각도 등의 모든 초기 변수를 계산하여 그 사람이 어디에 떨어질 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뉴턴의 고전물리학은 그 사람이 빌딩에서 뛰어 내릴지 말지와 같은 결정적 의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설명이나 예측도 제공해 줄 수 없다. 국제정치의 현실 분석은 탱크나 비행기의 숫자를 세어 국력을 측정하고 GNP나 무역량을 측정하여 경제력을 계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베트남 전쟁의 미래를 예측하였다면 당연히 단기간의 미국의 승리가 예측되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극체제나 다극체제에 대한 논쟁도 깔끔한 결론이 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현실’은 물질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 의지, 능력, 감정 등과 같은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³⁴⁾ 이제까지 설명적 이론들은 이와 같은 비물질적 요소를 ‘합리적 모델’이라는 단순화를 통해 ‘물질화’ 시키려 하였다. 다시 말해 정책결정자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계산을 통해 모든 것이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믿게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의식과 의지를 가진 인간이 변수로 작동하는 국제정치는 물질의 세계와는 달리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국제정치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³⁵⁾

33)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4).

34) 여기에 날씨와 같은 자연환경과 다른 ‘우연’적 상황을 포함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35) 최근 웹트는 양자역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의식이 물질이 아닌 양자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III. 구성적 이론 : 종교, 철학, 프로파간다와의 차이점?

외부의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설명적 이론과는 달리 구성적 이론은 우리가 세계에 관해 생각하게끔 만드는 바로 그 개념들이 세계를 지금과 같이 만들어 낸 것이고 사회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론이 그 세계를 구성한다고 믿는다. 이론이 세계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시각은 탈근대주의, 규범이론, 비판이론 등을 포함하는 성찰주의 패러다임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성찰주의 이론은 최근 완성된 웬트의 구성주의 이론만큼 주류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 아마도 그것은 같은 아이디어, 규범, 가치 등을 논함에도 웬트의 구성주의는 인식론적,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주류학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기반주의적(실증주의적)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³⁶⁾ 또한 웬트의 구성주의 이론은 비록 어렵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주류학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만큼의 논리적 치밀함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적 이론의 특성을 그 어떤 성찰주의 이론보다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1920년대 윌슨(Woodrow Wilson)이나 지머만(Alfred Zimmerman) 등으로 대표되는 이상주의 주장들은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현실주의의 강력한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었고 그 후 (신)현실주의와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은 거의 자동적으로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논의로 비판받게 되었다.³⁷⁾ 애슐리(Richard Ashley)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아주 오랜 동안 합리주의적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주요가정에 의문을 가지면 그 즉시 그는 과학의 정당한 분야에서 개인적 도덕, 가치, 충성심, 목적의 영역으로 잘못 들어간 것으로 느끼게 만들어졌다.³⁸⁾ 하지만 유럽통합과 냉전의 평화로운 종식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은 현실주의와 실증주의 패러다임의 유용성에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고 아이디어, 대중에 대한 교육, 이익조화(harmony of interests), 평화 등을 강조하였던 이상주의적 시각에 대한 재평가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사실 구성적 이론은 초기의 이상주의 이론가들 이외에도 콕스, 애슐리, 러기, 크라토크빌, 오누프, 하버마스, 후코 등의 전혀 다른 시각의 학자들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장되어 왔다. 하지만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웬트의 구성주의 이론만큼 미국의 주류학계에서 동의를 얻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다른 시각들은 인식론적,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반기반주의적(탈실증주의)적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크라토크빌과 러기 같은 학자들은 주체/관찰자(subject)와 객체/관찰대상(object)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하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은 진정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식론이 존재론을 부정한다는 주장을 펼쳤고³⁹⁾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36)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37) Michael Joseph Smith, *Realist Thought from Weber to Kissinger*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6), pp. 56-61.

38) Richard K. Ashley, "The Poverty of Neorealism," in Robert 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39) Friedrich Ktatochwil and John G. Ruggi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 State of the Art on and

실증주의에 대해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차원 모두에서 의문을 제기하였다.⁴⁰⁾ 이에 반해 웬트는 자신의 구성주의 이론과 합리주의(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이론 사이의 논쟁은 존재론적인 문제이지 인식론이나 방법론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선언함으로써 주류학계와의 접점을 찾으려 노력한 것이다. 특히 웬트는 북한과 같은 나라가 핵무기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영국과 같은 나라가 몇 백 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은 전자에 더 많은 위협을 느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증주의자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같은 무정부 상태라 하더라도 홉스, 로크, 칸트적 무정부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의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볼 때 부인하기 어려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⁴¹⁾

외부에 존재하는 물질적 구조가 아니라 국가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기대에 의해 국제정치적 성격이 결정된다는 웬트의 구성주의 이론은 사회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론이 그 세계를 구성한다고 믿는 구성적 이론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웬트의 구성주의 이론은 다른 성찰주의 이론과 결정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이론이 아이디어, 규범, 가치 등을 논하고 있지만 특정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성찰주의 이론가들은 ‘인간해방’ 또는 ‘합리적 세상’등의 특정가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웬트는 구성주의 논의에서 어떤 세상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웬트는 홉스, 로크, 칸트적 무정부 상태가 행위자들의 믿음과 기대에 의해 결정됨으로 무정부 상태는 국가의 하기 나름이라고 주장이지만 정작 세계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물론 그가 홉스 보다는 칸트적 무정부 상태를 선호할 것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웬트는 이 부분에 대해 선호도를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고 또한 구체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홉스에서 칸트적 무정부 상태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회피한다. 비록 국가들이 가지는 관념에 의해 국제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국가들의 관념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적 논의에서 규범적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⁴²⁾

구성적 이론의 가장 큰 약점은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개념이 세계를 지금과 같이 만들어 냈다면 국제정치란 학문이 종교, 프로파간다, 철학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국제정치란 학문이 단순히 정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찾아야 하는가? 아니면 종교와는 달리 믿음이나 권위에 호소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논리와 이성을 통해 설득력을 얻으려 하는 것에서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설득력을 얻어야 할까? 기본적으로 철학도 이성과 논리를 통해 독자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구성적 이론들은 자연과학에 기초한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거부하는 반기반주의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스스로 논리적

Art of the S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No. 4 (Autumn 1986).

40) Pauline Marie Rosenau, *Post-Modernism and the Social Sciences: Insights, Inroads, and Intrusion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41) 양준희 “윌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웬트의 구성주의의 도전,” 『국제정치논총』, 제41집 3호, (2001).

42) 최근 웬트는 양자역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성주의 이론을 주장하였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실증주의적 인식론이 잘못된 가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웬트는 자신이 비록 국제정치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아이디어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지만 의식(consciousness)에 대해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고 의미(meaning)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음을 돌이켜 보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Wendt, "Social Theory as Cartesian science," p. 216 참조.

기반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만약 구성주의 이론들이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극단적 형태를 띠게 되면 합리적 논의와 비합리적 논의의 경계가 애매해진다. 모든 학자들이 저마다 규범적 논의를 펼치게 되면 어떤 규범이 더 ‘나은’ 규범인지 또는 ‘옳은’ 규범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반기반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상대주의적 관점에 빠져 그 어떤 판단도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모겐소와 같은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은 남을 지배하려는 권력욕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하는데 국제정치 학자들이 세계평화나 협력을 아무리 외친다 한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우드로 윌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상주의 이론가들이 실패한 이유가 ‘현실’ 세계에 대한 냉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또한 윌츠와 같은 신현실주의 이론가들은 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부와 권력을 향한 투쟁은 우리의 선호와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구성적 이론가들이 아무리 인간해방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국제구조의 ‘현실적’ 제약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상대주의의 위험성과 현실주의 이론가들의 비판은 구성적 이론가들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VI. 기반주의/반기반주의 구분에 대한 논의와 현대물리학

기반주의와 반기반주의에 대한 구분은 과학철학에서 인식론으로 알려진 분야이고 진리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객관적 절차에 의해 참 혹은 거짓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기반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세계의 어떤 모습에 대한 주장이 중립적인 절차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 반기반주의자들은 진리에 대한 주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설명적 이론들이 기반주의적 성격을 띠는 반면 웬트의 구성주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적 이론들은 반기반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기초한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명백하게 모순되게 보이는 두 진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에는 옳은 것과 틀린 것, 진실과 거짓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국제정치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끝없는 논쟁도 이와 같은 실증주의적 인식론에서 비롯된다. 즉 (신)현실주의면 (신)현실주의, 이상주의면 이상주의 시각이 맞는 것이지 모순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마르크시즘, 포스트모더니즘, 구성주의 등의 다양한 이론들이 동시에 다 맞을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다양한 이론들이 국제정치의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이론이 경쟁이론보다 전체적으로 더 ‘진리’에 가까운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고 결정적 실험을 통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기반주의 패러다임의 기본적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인문사회과학에서는 특정 사례 연구에 의해 한 이론이 옳고 다른 이론이 틀리다고 증명되거나 반증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⁴³⁾

그리에코가 EU의 경제정책을 분석하면서 자신이 분석하는 사례연구가 (신)자유주의 이론에 매우 유리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신)현실주의 이론이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때 그는 자신의 연구가 (신)자유주의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실험이 되기를 희망하였을 것이다.⁴⁴⁾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신)현실주의 학자가 한 가지 결정적 실험을 통해 (신)현실주의 이론의 우수성을 증명하면 (신)자유주의 또는 구성주의 학자가 나타나 그들의 이론의 우수성을 증명해 주는 사례를 들고 나온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쟁은 명쾌한 결론으로 매듭지어 지기 보다는 무관심 속으로 사라지거나 모양과 단어만 바꾼 형태로 끊임없이 계속된다. 현재 국제정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구성주의 논의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1920년대에 진행되었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논쟁의 많은 부분을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끊임없는 이론적 논쟁이 발생한다. 하지만 국제정치학계와 같이 시대적, 공간적 상황에 따라 특정 이론의 평가가 판이하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미국 출신이냐 아니면 한국 출신이냐에 따라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법칙/이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또한 1920년대의 아프리카에서 잘 적용되었던 뉴턴의 법칙이 2000년대의 아시아에서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제정치학계의 이론에 대한 평가는 시공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1920년대에 활발히 논의되었던 이상주의적 관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실주의 시각의 힘에 눌려 거의 도외시 되었고 그 후 국제정치학계를 거의 지배하였던 현실주의 패러다임도 최근에는 동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이상주의적 시각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국제정치 이론이 얼마나 좌우되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도 공간에 따라 특정 시각이 옳다고 또는 틀리다고 받아들일 경우가 국제정치학에서는 종종 발생한다. 즉 냉전의 시기에 마르크스주의(자본주의)는 소련이나 중국에서는 옳다고(틀리다고) 받아들여졌겠지만 미국에서는 그와 반대로 생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이론의 옳고 그름이 계속 바뀐다면 무엇이 진리이고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기반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이론의 옳고 그름이 바뀌고 국제정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정치란 학문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고 자연과학에서처럼의 정밀성과 과학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제정치에서도 자연과학과 같은 법칙과 이론들이 발견되고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다. 따라서 다양한 패러다임간의 논쟁은 궁극적으로 어떤 시각이 옳으나를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필요한

43) 물론 쿤은 자연과학에서조차도 종종 결정적 실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때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대체될 경우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뉴턴의 패러다임이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을 논하지 않고 특정 상황에서는 뉴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자연과학자들은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순환하는 논쟁을 벌이지는 않는다.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and Imre Lakatos,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44) Joseph M. Grieco, *Cooperation Among Nations: Europe, America, and Non-Tariff Barriers to Trad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과정이고 비록 시간과 공간에 따라 특정 이론의 옳고, 그름이 바뀌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패러다임이 더 광범위하게 시공을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런데 기반주의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으로 대표되고 있는 현대물리학은 뉴턴의 고전물리학이 특정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물리학이 묘사하고 있는 우주는 설명적 이론보다는 구성적 이론에 가깝고 전통적 기반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기반주의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는 절대적인 개념이고 공간도 절대적인 개념이다. 또한 세상의 모든 물리적 현상은 엄격한 인과의 법칙을 따르고 객관적 잣대에 의해 특정 법칙이나 이론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될 수 있다. 문제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국제정치학계에서는 다양한 시간간의 합의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렬한 현실주의자와 강력한 마르크스주의자 또는 포스트모더니스트가 논쟁을 벌인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신도들 간에 벌어질 법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끊임 없이 지속되는 국제정치학계의 다양한 이론 간의 치열한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위의 문제에 대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은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제공해준다. 즉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세상의 모든 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상대주의 시각을, 양자역학은 상대주의적 관점을 넘어 우리의 생각이 사실상 세상을 창조한다는 결론까지 가능케 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물리학적 해석은 고전물리학과 비교해 보면 매우 혁명적이고 획기적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웬트도 지적하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연구하였던 학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새롭지 않을 것이다.⁴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에 대한 현대물리학적 재해석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가진 국제정치학자들이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성찰주의 시각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세울 수는 있어도 현대물리학이 발견한 ‘과학적’ 사실들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보는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인슈타인은 공간과 시간이 별개의 실체가 아닌 4차원의 ‘시공(時空)’ 연속체를 형성하고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는 모든 측정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그것을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뉴턴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 같이 흐르는 절대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특정인의 현재가 다른 사람의 미래가 될 수도 과거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구와 몇 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전쟁을 하고 있다면 지구에서는 빛이 몇 억 광년에 걸쳐 이동한 ‘미래’에 그 사람들의 ‘현재(전쟁상태)’를 보게 된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에 죽은 사람들의 ‘과거’를 ‘현재’라 생각하며 보게 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예는 지구에 있는 쌍둥이의 우주여행이다. 뉴턴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우주에 있으나 지구에 있으나 또는 우주선에 탑승하거나 절대적으로 똑같이 흐른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 쌍둥이 중의 한명은 광속의 우주선을 타고 다른 한명은 지구에 남아 있는 경우 몇

45) Wendt, "Social Theory as Cartesian science," p. 184.

시간 만에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쌍둥이는 자신의 다른 쌍둥이가 오래 전에 죽었거나 이미 많이 늙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속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이 가만히 있는 시계의 시간보다 천천히 가고 만약 특정 시계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시간이 멈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⁴⁶⁾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파악하고 나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름, 느림, 위, 아래, 옆 등의 모든 개념이 상대적으로만 파악될 수 있지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태양이 지구 ‘위’에 있는 것 같은 것은 지구의 관점에서 ‘보아서’ 그런 것이지 태양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가 ‘위’에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사람이 키가 170 cm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멈추어’ 있고 그것을 측정하는 사람도 ‘멈추어’ 있을 경우이지 그 사람이 빠르게 달린다면 그의 키는 줄어든다(사실 이 설명 또한 정확한 것이 아닌데 그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멈추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구도 움직이고 우리도 끝없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야구에서 타자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뉴턴의 고전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키가 줄거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 해석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멈추어 있을 때만 사람을 측정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그렇지 특정 속도에 사람을 측정하면 그 사람의 키는 항상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뉴턴의 고전물리학적 세계관에서는 무거움, 가벼움, 빠름, 느림, 위, 아래, 시간, 공간 등의 모든 측정이 절대적이고 하나이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세계에서는 모든 것(빛의 속도는 예외!)이 상대적 관계의 구조 안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관찰자의 위치, 운동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⁴⁷⁾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세상의 모든 것이 상대적 관점에 불과하고 절대적 진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던 포스트모던적 시각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획기적이지만 양자역학이 논하는 우주관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웬트도 양자역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기초한 실증주의가 아닌 탈실증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국제정치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지면관계상 양자역학에 대한 논의를 상세히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⁴⁸⁾ 뉴턴의 고전물리학은 현실의 기본 단위가 물질이고, 그 물질은 법칙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물체는 그것을 관찰하는 주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양자역학은

46) 클리포드 윌, 이해심(역), 『아인슈타인이 옳았는가?』 (서울: 범양사, 1994); 폴 데이비스, 류시화(역), 『현대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서울: 정신세계사, 2003) 참조.

47) Fritjof Capra, *The Tao of Physics: An Exploration of the Parallels between Modern Physics and Eastern Mysticism* (Boston: Shambhala 2000); Brian Green, *The Elegant Universe: Superstrings, Hidden Dimensions, and the Quest for the Ultimate Theory* (Norton, New York: 1999); ; and 빌 브라이슨, 이덕환(옮김),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서울: 까치, 2003) 참조.

48) 저자는 다른 논문을 통하여 웬트의 양자역학에 대한 논의의 한계를 상세히 지적하였고 독자적 관점에서 현대물리학과 국제정치를 접목시키려 시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학적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 보다는 간단히 요약하는 수준으로 논의를 국한시키도록 하겠다.

아원자 차원에서의 물체들은 유령과 같은 과정으로 용해되고, 인과 작용은 비국소적이며 세상은 결정론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물체는 그것을 관찰하는 주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⁴⁹⁾ 특히 양자역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관찰을 받는 대상과 관찰자가 하나의 관계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전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관찰자(주체)와 관찰대상(객체)은 분명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만약 우리 앞에 고양이가 있다면 그 고양이를 바라보는 관찰자(우리)와 관찰되는 대상(고양이)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양자역학자들은 빛이 입자와 파동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 형태를 띠는 것에 대한 의문⁵⁰⁾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양자물리학자들은 빛이 입자이거나 파동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실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이지 빛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고 말해 주고 있다. 빛이 관찰자와 연결되어 입자가 될 수도 파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양자역학적 해석은 주체와 객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객관적 관찰이 가능하다고 믿는 고전물리학적 가정을 근본적으로 깨고 있다.

비록 논쟁의 소지가 많지만 양자역학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객관적’ 세상이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 의해 창조된다는 견해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⁵¹⁾ 웬트가 대중에게 양자역학을 쉽게 설명해주는 최고의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게리 주카브(Gary Zukav)의 *The Dancing Wu Li Masters: An Overview of the New Physics*를 보면⁵²⁾ “철학적으로 볼 때 양자역학이 암시하는 것은 환각적이다(psychedelic). 우리는 현실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이 펼쳐진다.⁵³⁾ 상대주의적 관점과 인간의 구성적 요소를 강조하는 현대물리학은 어떤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매우 유사하고 구성적/반기반주의적 입장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물리학은 사실상 구성적/기반주의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비록 실증주의적 시각에 기초한 단순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아닐지라도 매우 고차원적 차원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극단적 반기반주의적 입장을 취하면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세상에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이론은 관점

49) Wendt, "Social Theory as Cartesian science," p. 191.

50) 고전물리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특정 물체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입자란 어떤 공간의 특정 위치를 차지하는 점과 같은 개념이고 파동이란 돌맹이를 물속에 던졌을 때 물 수면 위에 넓게 퍼져 나가는 파도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특정 공간에 한정되어 존재하는 점이 여기에도 존재하고 저기에도 존재하는 파동이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51) Michael Talbot, *Beyond the Quantum: How the Secrets of the New Physics Are Bridging the Chasm Between Science and Faith* (New York: Macmillan, 1986); Gregg Braden, *The Divine matrix: Bridging Time, Space, Miracles, and Belief* (Carlsbad, California: Hay House, Inc., 2007); and Sandra Anne Taylor, *Quantum Success: The Astounding Science of Wealth and Happiness* (Carlsbad, California: Hay House, Inc., 2006),

52) Wendt, "Social Theory as Cartesian science," p. 191.

53) Gary Zukav, *The Dancing Wu Li Masters: An Overview of the New Physics* (New York: Perennial Classics, 2001), p. 30.

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면 그와 같은 주장조차도 결국에는 견해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과장되게 말하면, 자신들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상대주의적 관점이나 인간의 구성적 요소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점이 더 진리에 가깝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은 존재하여야 한다. 현대물리학은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기초한 실증주의적 인식론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주에 대한 현대물리학적 해석이 더 진리에 가깝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기반주의적 입장을 표명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국제정치에 적용하여 보면 시간과 공간에 따라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능케 해준다.⁵⁴⁾ 즉 과거의 구소련이나 중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던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론이 자유주의 이론 보다 세상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고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에서 성장한 사람들 보다 알라신을 숭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설명적/기반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이론이나 종교가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그것은 관찰자 또는 판단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상의 그 누구도 ‘객관적’일 수 없고 따라서 특정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르크스 이론을 조금이라도 선호하는 학자들은 공산주의 이론에 유리한 ‘증거’들을 찾을 것이고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것이다. 과연 누가 어떤 시각이 옳다고 결정 내릴 수 있는가? 여기에 양자역학은 세상이 사실 우리의 생각에 의해 창조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즉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세상이 옳다고 믿고 그와 같은 세상을 원하면 그와 같은 세상이 현실화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자들이 계속해서 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에서의 권력과 부를 향한 국가 간의 끝없는 투쟁이라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면 현실세계가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양자역학적 해석이다. 다시 말해 모든 이론이나 생각은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보는 이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 세상이 창조될 수 있다 점에서 구성적 이론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상대주의적 관점과 인간의 의식에 의해 세상이 창조될 수 있다는 시각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장하는 극단적 반기반주의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또는 실험적으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하나의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고 모든 것이 반증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실증주의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따라 진리가 다를 수 있고 세상의 많은 이론이나 생각이 자기실현적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대물리학은 그와 같은 관점이 국제정치를 설명함에 있어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기초한 실증주의적 인식론 보다 더 적합한 모델임을 암시하고 있다.

54) 하지만 그와 같은 ‘사실’ 자체는 ‘진리’이다.

V. 결 론

본 논문은 국제정치학계에서 끊임 없이 계속되어 온 실증주의/탈실증주의 논쟁을 설명적/구성적 이론과 기반주의/반기반주의 구분이라는 틀을 사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재조명하였다. 특히 법칙과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설명적 이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모순을 상세히 논하였다. 즉 물질세계를 설명하듯이 사회세계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설명적 이론은 결정론적 우주관을 펼치거나 인간의 의식이나 노력에 의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두 가능성 모두 설명적 이론가들에게는 매우 곤란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었다. 반면 이론이 세계를 구성하는데 사실상 도움을 준다는 구성주의 이론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매우 타당하기는 하지만 반기반주의적 입장을 취할 경우 종교나 철학 또는 프로파간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설명적 이론가들은 진리에 대한 주장의 옳고, 그름이 밝혀질 수 있다는 기반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반면 많은 구성적 이론가들은 그와 같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반기반주의적 견해를 펼치는데 본 논문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대표되고 있는 현대물리학의 해석을 통해 국제정치를 구성적/기반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물론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반주의적 입장은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기초하고 있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관점과 우리의 의식에 의해 세상이 사실상 창조될 수 있다는 현대물리학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제완 외 14인, 『상대성이론 그후 100년』 (서울: 궁리출판, 2005).
- 남궁근, “웬트가 양자로 간 까닭은?: STIP(1999) 이후 구성주의 방법론 이행에 관한 소고,” 『한국정치학회회보』 제42집 2호, 1998(여름).
- 브라이언 그린, 박병철(역), 『우주의 구조』 (서울: 승산, 2004).
- 빌 브라이슨, 이덕환(옮김),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서울: 까치, 2003).
- 스티브 스미스, “성찰주의와 구성주의,” 존 베일리·스티브 스미스(편저), 2nd ed.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3).
- 양준희 “티모스적 시각으로 본 국제정치: 제3의 논쟁을 넘어서,” 『국제정치논총』, 제36집 1호
- “월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웬트의 구성주의의 도전,” 『국제정치논총』, 제41집 3호, (2001).

이경숙, 『마음의 여행: 과학으로 풀어 본 삶·죽음·영혼』 (서울: 정신세계사, 2002).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하영선외 다수(역),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3).

폴 데이비스, 류시화(옮김), 『현대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서울: 정신세계사, 2003).

홍성욱, 이상욱 외 지음, 『뉴턴과 아인슈타인: 우리가 몰랐던 천재들의 창조성』 (서울:
 창비, 2004)

Ashley, R. K., "The Poverty of Neorealism," in Robert 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Capra, F., *The Tao of Physics: An Exploration of the Parallels between Modern Physics and Eastern Mysticism* (Boston: Shambhala 2000).

Carr, E. H.,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4).

Christensen, T. J. and Snyder, J.,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2 (Spring 1990), pp. 137-168.

Green, B., *The Elegant Universe: Superstrings, Hidden Dimensions, and the Quest for the Ultimate Theory* (Norton, New York: 1999).

Grieco, J. M., *Cooperation Among Nations: Europe, America, and Non-Tariff Barriers to Trad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Guzzini, S. and Leander, A. (eds.), *Constructiv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lexander Wendt and His Critics* (London: Routledge, 2006).

Hawking, S. *A Brief history of Time: From the Big Bang to Black Holes* (New York: Bantam Books, 1990).

Hobbes, T., *Leviathan* (New York: Penguin Books, 1968).

Katzenstein, P. J.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Kaufmann, C. D. and Pape, R. A., "Explaining Costly International Moral Action: Britain's Sixty-year Campaign Against the Atlantic Slave Trad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4, (Autumn 1999).

Kratochwil, F. and Ruggie, J. G., "International Organization: A State of the Art on and Art of the S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No. 4 (Autumn 1986).

Lakatos, I.,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Imre Lakatos and Alan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 Lapid, Y., "The Third Debate: On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Theory in a Post-Positivist Er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3, 1989.
- Morgenthau, H., *Politics Among Nations*, 6th ed. (New York: Alfred A. Knopf, 1985).
- Patomaki, H., "Back to the Kantian 'Idea for a Universal History'? Overcoming Eurocentric Accounts of the International Problematic,"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5, No. 3, 2007.
- , and Wight, C., "After Postpositivism? The Promises of Critical Realis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 (2000).
- Popper, K. R., *Conjectures and Refutations: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London: Routledge, 1963).
- Rosenau, P. M., *Post-Modernism and the Social Sciences: Insights, Inroads, and Intrusion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Schweller, R. L.,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Summer 1994), pp. 72-107.
- Smith, M. J., *Realist Thought from Weber to Kissinger*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6).
- Smith, S., "Positivism and Beyond," in Steve Smith, Ken Booth and Marysia Zalewski, (eds.), *International Theory: Positivism and Beyo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Schroeder, P. W., "Historical Reality vs. Neo-realist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Summer 1994).
- Sylvester, C., "Whither the International at the End of IR,"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5, No. 3, 2007.
- Vaquez, J., "The Realist Paradigm and Degenerative vs. Progressive Research Programs: An Appraisal of Neotraditional Research on Waltz's Balancing Propos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4 (December 1997),
- Walt, S. M., *The Origins of Allia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Waltz, K. N.,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 , K.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 Wendt, A.,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 A., "Anarchy is what States makes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an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2006.

----, A., "Social Theory as Cartesian Science: an Auto-Critique from a Quantum Perspective," in Guzzini and Leander, (eds.), *Constructiv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2006).

Zukav, G., *The Dancing Wu Li Masters: An Overview of the New Physics* (New York: Perennial Classics, 2001).

Abstract

Old Debates and Modern Physics

A New Look at Explanatory/Constitutive Theories and Foundational/Anti-foundational Theories

Yang, Chun Hee*

This study aims to take a look at the never-ending debates of positivism vs. post-positivism with a new framework of explanatory/constitutive and foundational/anti-foundational theories. Explanatory theories, which claim that the natural and social worlds are the same, either end up with determinism or with the focus on normative theories, both of which posing serious logical problems with the main aims of explanatory theories. On the other hand, constitutive theories which claim that our theories actually help construct the world is in harmony with our common sense and historical experiences. However, when constitutive theories take the position of anti-foundational approach, we find little differences among religion, philosophy, propaganda, and constitutive theories. This article hopes to find a new ground between explanatory/constitutive and foundational/anti-foundational theories. While most explanatory theories take the foundational approach, constitutive theories being anti-foundational, this study claims that the path of constitutive and foundational theories are possible. With the help of modern physics, characterized by Einstein's theory of relativity and quantum mechanics, this study shows that 'truth' can be relativistic and that we might actually create a reality we once thought them to be the 'objective' reality out there that is beyond our control. And yet, we can still have a foundational ground to judge which theories and thinking offer a better description of the reality out there.

■ 논문접수일 : 2008 10월 15일, 논문심사일 : 2008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1월 20일

* Associate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